

도내 '직업계고' 정보 한눈에 본다

기능인재 한마당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교육청서

'2018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은 직업계고의 학교교육과정 및 특색사업을 홍보하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4회째다. 행사는 ▲직업체험부스 운영 ▲직업계고 진로상담 ▲인문소양프로그램 및 감성발표회 ▲셀프마케팅 ▲입시

설명회 ▲프로젝트 수업발표 ▲유관기관 기업인 초청 등으로 운영된다.

우선 직업계고 창업동아리와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홍보·전시하는 직업체험부스에는 도내 32개 직업계고에서 참여한다.

드론비행체험장, 3D프린터 제품제작 과정 전시 및 체험, 로봇체험, LED순전등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농업·공업·상업계열 등 학교별 담

당교사가 직접 참여해 입학상담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또한 공업·가사계열 전공별 프로젝트 수업결과 전시와 체험도 이루어진다.

전기전자·기계·첨단산업 등 공

업계열의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진행

한 수업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직접

설명하며, 조리·제과제빵·식품가공

분야의 학생들은 직접 만든 디저트

요리를 선보이며 시식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장실습 참여(선도) 기업 등

유관기관과 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해

전북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취업연계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기능인재 한마당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능인재 한마당은 도내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도교육청은 '기능인재와 기업인' 간 지속적인 인력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통의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고가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리공고의 풍성했던 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서 수상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옥)는 10월 한 달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99회 전국체전, 제4회 송재성 동문 추모문화제와 2018 기립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숨기거나 한 달을 보냈다.

이리공고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건축캐드 분야 유*숙), 장려상(전기 분야 양*석)을 획득했다. 이는 전북이 차지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중의 하나로써 매우 값지고 알찬 수확이다. 또한, 이리공업

/장은성 기자



지난 30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와 국제한식문화재단이 양자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식 꿈나무들의 미국 진출 신호탄

국제한식조리학교, 미주한상과 업무협약 체결…한식 세계화 탄력

지난 30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와 국제한식문화재단이 양자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찬 행사가 포함된 업무 협약식에서는 미주 한인상공회의

소 총연합회 회장단 15인을 비롯해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장, 국제한식조리학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의 양해각서는 ▲ 국제한식

조리학교 졸업생들의 미국 취·창업 진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미국 현지 레스토랑에 조리인력 파견 ▲ 메뉴개발 및 레시피 제공 ▲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지원, 맞춤형 식자재·가공품 개발 지원 등이다.

남기주한인상공회의소 정창식 회장은 "미주 한인 레스토랑 협회에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한식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2019년 4월 경

에, 한식 조리 인력을 대거 모집하여 현지 업체와 고용을 연계하는 박람회를 칼리포니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몽골,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형 취·창업 인프라 구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국형 취·창업 판로 개척에도 신호탄을 날렸다.

/장은성 기자

의산교육지원청, 중학교 무시험 진학 설명회 운영

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해 1일 관내 초등학교 교감 및 6학년 교사 대상, 8일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학교 무시험 배정 설명회는 의산교육지원청이 배정 원칙에 관한 내용과 원서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여 배정 민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하기 위함이다. 의산교육지원청은 학교군과 중학교

로 구분되어 배정원서를 작성하는데 학교군은 11개 중학교까지 순위별 지망교를 제출한 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읍면지역인 중학교 12개 학생들은 해당지역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배정하게 된다. 의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많은 학부모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중학교 진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경청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우리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호남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정책 지향 전반에 걸쳐 강력한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충실히 논의의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중등교사 임용경쟁률 10.1대 1

총 355명 모집에 3599명 접수

이달 24일 1차 필기시험

2019학년도 전북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0.1대 1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접수 결과 355명 모집에 3599명이 접수해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9.3대 1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준이다. 26명을 모집하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는 26명이 응시해 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교과는 한문으로 집계됐다. 한문의 경우 6명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